

조선 후기 승려의 금강산 유람록 연구

- 18세기 허정 법종(虛靜法宗), 19세기 혼원 세환(混元世煥)의 금강산 유람록을 중심으로

이정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glib@naver.com

I. 머리말

II. 법종과 세환의 금강산 유람기록

III. 유람록에 나타난 금강산 공간 인식

IV. 맺음말

요약문

조선 후기에 금강산 유람은 크게 유행하여 수많은 유람록이 남아있다. 그 기록의 작자는 대부분 양반 문인들이었다. 유람록에서 불교에 대한 내용은 여행자의 피상적 관찰과 유학자의 시각에서 서술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두 승려의 금강산 유람기록을 다루었다. 18세기 허정 법종(1670-1733)의 「유금강록(遊金剛錄)」과 19세기 혼원 세환(1853-1889)의 「금강록(金剛錄)」이다. 이 글은 승려 유람록에 대한 시론적 연구로서, 법종과 세환의 금강산 유람 기록 중 유람 경로와 금강산 사찰의 모습, 금강산 공간 인식을 검토하였다.

산수 유람이 크게 유행하던 시기에 이 두 승려는 유람을 표방하고 금강산 곳곳을 순력하여 유려한 문장으로 기록을 남겼다. 그 기록들은 당시 금강산 유람의 시대적 양태를 반영하는 한편, 대다수의 유학자들과는 차별화된 시각에서 금강산 사찰과 지명에 얽힌 전승을 충실히 기록했다. 유학자의 유람록에서 승려들은 유람을 위한 노동력이나 관찰 대상이었다. 승려가 유람의 주체가 되어 남긴 기록은 금강산 유람

의 다층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이다. 법종과 세환의 기록에서는 금강산 공간을 승려의 시각에서 인식하고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승려는 금강산을 순례하면서 부처와 보살, 성문, 시왕이 주처하는 불세계임을, 역대 고승들이 자취가 남은 역사적 공간임을 확신하고 기록을 남겼다. 따라서 이들의 유람은 보통의 산수 유람이 아니라 불세계에 대한 순례길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조선 후기 승가의 인식을 보여주는 두 승려의 유람록은 금강산 표상을 둘러싼 담론의 장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금강산, 금강산 유람, 법종, 세환, 승려 유람록, 유금강록, 금강록

I. 머리말

현재 고려 말부터 조선 말까지 금강산 유람록은 170여 편이 알려져 있다.¹⁾ 그 대부분은 조선 후기 양반 문인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 금강산 유람은 사족계층의 문화로서 설명되었으며 유람 배경과 문화사적 의미를 다룬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한편, 양반 문인들의 유람록은 조선 후기 금강산 불교의 양태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연구되었다.²⁾ 하지만 그러한 유람록에서 불교에 대한 서술은 여행자의 피상적 관찰과 유학자의 시각에 의한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당시 불교의 모습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두 승려의 금강산 유람기록을 다루려고 한다. 18세기 허정 법종(1670-1733)의 「유금강록(遊金剛錄)」과 19세기 혼원 세환(1853-1889)의 「금강록(金剛錄)」이다.³⁾ 18-19세기 승려의 금강산 유람기록으로 현재까지

1)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원 한국학연구토대사업단에서 실시한 기초자료 조사에 의한 것으로 한시와 가사를 제외한 한문 산문의 수이다.

2) 최윤정 2008; 고영섭 2010; 이경순 2013a; 이종수 2017.

3) 법종 2015; 세환 2020.

알려진 것은 법종과 세환의 유람록 외에 이면신(李勉信)의 『봉래일기(蓬萊日記)』가 있다.⁴⁾ 『봉래일기』는 1894년에 작성된 유람록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근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기록으로 판단하였다.⁵⁾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적 성격을 지닌 승려의 유람록으로서 법종과 세환의 유람록 두 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승려들의 유람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다. 조선 후기 금강산 유람이 양반뿐 아니라 양민층에게 까지 확대된 사정을 고려한다면⁶⁾ 다양한 계층의 유람 기록은 금강산 유람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유람록에서 양반의 유람에 동원된 노동력이나 관찰대상에 머물렀던 승려들이 유람의 주체가 되어 남긴 기록은 금강산 불교를 연구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금강산 유람록을 저술한 법종과 세환은 조선 중기 불교계를 중흥시킨 청허의 제자 그룹 중 최대 문파인 편양문파에 속했다. 이들은 강사로 명성을 떨쳤으며 문집을 남길 정도로 학식과 문장력을 갖춘, 조선 후기의 문사적(文士的) 승려였다. 이들이 금강산에 대해 기록한 것은 사족층 문인들과 차이가 있었다. 그 기록은 승려로서 정체성이 반영되었으며 금강산 공간을 승려의 시각에서 인식하고 표현했음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법종과 세환의 금강산 유람 기록 중 유람경로, 금강산 사찰의 모습, 금강산 공간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승려의 유람기록이 금강산 유람의 전통과 금강산 공간에 대한 담론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4) 『봉래일기』는 계룡산 동화사에 주석했던 청운(淸雲) 이면신이 1894년 충청도에서 출발하여 인천과 경성을 거쳐 금강산을 유람한 기록이다. 이면신 2020.

5) 1894년은 갑오개혁과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한 해로서, 이면신은 유람 경로에서 인천의 청일조계지, 일본 사찰 본원사, 전환국 등 근대시기의 기관과 문물을 기록하였다.

6) 18세기 민화 금강산도, 금강산과 관련된 민간의 구전설화 등은 평민에 이르기까지 금강산 유람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음을 말해준다. 행상, 거지, 시골노파까지 금강산으로 향했다는 강세황(姜世晃)의 글이나 제주의 평민여성 만덕(萬德)이 금강산 유람을 희망하고 실행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경순 2013b, 55-56.

II. 법종과 세환의 금강산 유람기록

허정 법종과 혼원 세환의 금강산 유람을 살펴보기에 앞서 두 승려의 생애와 이력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종(1670-1733)은 관서지방 출신으로, 12세에 불교에 입문하여 20세 무렵 묘향산에 들어갔다. 법종은 청허의 제자 그룹 중 하나인 편양문파(鞭羊門派)에 속하여, 청허휴정(淸虛休靜)-편양언기(鞭羊彦機)-풍담의심(楓潭義諶)-월저도안(月渚道安)-설암추봉(雪巖秋鵬)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계승하였다. 그는 묘향산, 구월산 등지에서 강사로 이름이 높았으며 편양문파의 근거지인 묘향산에 입적시까지 주석하였다. 묘향산, 구월산에 부도가 세워졌고 대둔사에 비가 세워졌다. 그의 문집인 『허정집(虛靜集)』은 특이하게도 입적하기 1년 전인 1732년에 보현사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이 문집에는 록(錄)이 2편 실려 있는데, 「유금강록」과 「속향산록(續香山錄)」이다.⁷⁾

세환(1853-1889)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16세에 출가하여 팔공산 극암사성(克菴師誠, 1836-1910)의 제자가 되었다. 세환은 불교경전 뿐 아니라 제자백가서도 통달했다고 알려졌다. 1883년 예천 용문사에서 용호화상에게 계를 받고 극암에게 법을 받아 영파성규(影波聖奎)의 7세손이 되었다. 그 후 백련사, 청암사 등지에서 강석을 열어 명성을 얻었다. 팔공산에서 후학을 지도하던 중 1889년 37세의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입적하였다. 문집인 『혼원집(混元集)』은 1912년에 발간되었다.⁸⁾ 금강산 유람기록인 「금강록」은 이 문집에 실려 있다.

법종과 세환은 출생 연도는 183년, 금강산 유람 시기는 172년의 격차가 있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고승으로 강사로 이름 높았으며 편양문파에 속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법종은 설암추봉의 법을 잇고 편양문파의 본산인 묘향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세환은 편양문파가 한반도 남부로 진출한 이후의 세대로, 환성지안(喚醒志安)에서 함월해원(涵月海源)을 거쳐 영파성규로 이어진 법맥을 계승하여 영남의 팔공산을 중심으로 활약을 펼쳤다. 이들에게 금강산은, 자

7) 성재현 2015, 5-16.

8) 윤찬호 2020, 9-17.

신들의 선사들이 묘향산과 함께 본거지로 삼았던 성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금강산 유람은 편양문파로서 선사들의 자취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또한 두 승려는 문집을 남길 정도로 학식과 문장에 뛰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승려로서 유람록을 남겼다는 것은 당대 유행한 금강산 유람 문화나 기유(紀遊)문예에 친숙한 조선 후기의 문사적 승려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운수행이 일상이었던 승가의 전통에서, 이들이 ‘유람’을 목적으로 금강산을 여행하고 유람록 형식의 글을 별도로 남긴 것은 특이한 사례로 보일 수도 있다. 조선 후기 금강산 유람록이 유행하는 가운데 불교계 최상위 지식인층이라 할 수 있는 두 승려가 이러한 문예 조류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종은 1711년 봄, 묘향산에서 출발해 금강산 유람에 나섰고 세환은 172년 뒤인 1883년 가을, 예천 용문사에서 금강산으로 향했다.

〈표 1〉 법종과 세환의 유람기록

	허정 법종(1670-1733)	훈원 세환(1853-1889)
유람 시기	1711년 음력 4월 10일 (봄)	1883년 음력 8월 15일 (가을)
당시 나이	42세	31세
출발지	묘향산	예천 용문사
여행기간	10일 이상	1달 이상
동행	학선	극암(스승)과 혼경(사제) 등

이제 법종과 세환의 유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법종은 유람록의 서두에, 주위로부터 들은 금강산에 대한 칭송과 화엄경의 금강산 찬양에 의해 금강산을 유람할 뜻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종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떤 경로로 금강산까지 이르렀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법종은 평생을 묘향산 보현사 주변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법종은 보현사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평안도에 위치한 묘향산에서 상당한 거리를 남동방향으로 이동하여 강원도 북부인 통천에 이른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구월산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종은 1708년경 구월산으로 초빙되어 간 적이 있었는데 언

〈표 2〉 법종과 세환의 이동경로

	허정 법종의 경로(1711)	혼원 세환의 경로(1883)
출발지 ↓ 금강산		예천 용문사-단양 청련암-만학강-열무실점포-지경점-진두점-평창읍-대화시장-월정사-상원암-묘암-적멸궁-상원암-북대-가마동-명주사-원통암-양양-낙산사-자마석-공수점-간성읍
금강산내	통천 총석정-백정봉-고성 온정-신계사-발연암-발연폭포-폭포암-효양곡-원통암-송림굴-송림암-박달고치-불정대-불정암-유점사-선정암-명적암-백련사-서부도-대적암(?)-구연동-중내원-초암-만경대-은선대-내수점-모길상암-불지암-계빈암-마하연-비로동-구룡점-구룡연-사자봉-마하연-만회암-백운대-만회암-만회대-선암-수미암-수미대-오수미동-진불암-임동-내원동-사자암-만폭동-화룡담, 선담, 구담-보덕굴-진주담-혹룡담-청룡담-은적암-은적대-표훈사-기구암, 삼장암-정양사-청련암-신림암-돈도암-보회암-백화암-운지암-안양암-삼일암-미아암-석가사엠티-송라암-대송라암터-망고대-현불암-백담동인근(길찾다 실패)-백마재-영원암-삼불암-옥초대-지옥동-장안사(극락암, 상관음암, 중관음암, 하관음암, 장경암)-(금장암, 은장암, 사근암)	건봉사-낙서암-보림암-봉암-몽천암-양가점-구령-노춘정-장항령-환희령-유점사-반야암-학소대-선담-효운동-은선대-십이폭포-안문령-마하연-백운대-만회암-불지암-사선교-비로봉-사자암-화룡담-청룡담-보덕암-만폭동-표훈사-청호연-용곡담-원통암-만절동-화우담-강선대-선암-사천왕암-천덕암-지덕암-수미암-정양사-백화암-삼불암-돈도암-송라암-망군대-안양암-장안사-영원암-수렴동-도솔암-백담동-영원암-태울암-중내원-미륵봉-유점사-정고마을-고성읍-해금강-고성읍-삼일포-칠성봉-발연-내수재-신계사-보광암-오선암-옥류동-구룡연-만물초-온정-보운암-운암동-백정봉-금란굴-말구리점-통천읍-고저마을-총석동-염락동 서재-장전점-고성읍-선주암-현종암
귀로		조계암

제 묘향산으로 돌아갔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강사로 주석했던 구월산에서 출발하여 금강산을 유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황해도에서 강원 북부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된다. 하지만 묘향산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유람의 경로는 통천에 도착했을 때부터 구체화된다. 금강산 내에서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통천 총석정에서 남하하여 외금강 유람의 출발점인 고성 온정에 이르렀다. 이어 신계사, 발연암, 송림암을 거쳐 유점사 지역으로 이동하여 외금강의 명소들을 편력하고 은선대를 거쳐 내수점 아래 길로 넘어갔다. 금강

산의 동쪽 끝에서 남서방향으로 이동하며 외금강을 유람한 것이다. 외금강 여행을 마치고 내금강으로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조선시대 유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고개가 바로 내수점이었다. 내수점은 안문점, 내무재령으로도 불렸다.

내금강 지역에 닿은 법종은 묘길상암터에 갔다가 마하연, 비로동을 거쳐 다시 북동방향으로 이동하여 구룡연을 돌아본 뒤 다시 내금강 지역으로 돌아왔다. 이후 내금강의 가장 유명한 구역인 만폭동, 표훈사 지역을 거쳐 망고대, 백담동 인근까지 탐색했다. 이어 영원암, 업경대를 거쳐 장안사 구역에 이르렀다. 유람록의 분량으로 본다면 외금강쪽 보다는 내금강의 명승에 더욱 집중한 것을 살필 수 있다. 며칠간 유람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10일 이상 금강산 내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법종은 일정에 대한 단순 정보가 나열된 보통의 여행기록과는 달리 견문과 감상을 풍부하게 담은 유람록을 저술했는데 여기에는 뛰어난 문장력과 깊은 학식이 반영되었다.

구룡동 비탈을 쓴살같이 내려오니 빼어난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고, 굽이진 개울의 소가 깊었다. 골짜기 좌우에는 푸른 절벽이 옆으로 깎여 있고 개울 위아래에는 흰 돌이 반반하게 갈려 있었으며, 물살은 여울목처럼 급하고 돌은 솟돌처럼 미끄러웠다. 그곳에 앉아 물을 움켜 이를 행구기도 하고 걸으면서 물을 차 발을 씻기도 하였는데, 읊조릴수록 거닐수록 산은 더욱 빛나고 개울은 더욱 아름다웠다. 바위 색깔은 영롱하고 물 소리는 짜랑짜랑해 바위가 옥을 품은 듯, 개울이 구슬을 흘뿌리는 듯하였다. 비록 북파산(伏波山) 환주동(還珠洞)을 보지는 못했지만 생각건대 이보다 낫지 않으리라. 길이 몹시도 가파르고 위태로운 곳에 이르자 손발이 모두 떨려 등나무 덩굴을 붙잡고 벼랑을 넘어 근근이 앞으로 나아갔다. 고개를 당겨 아래를 굽어보니 한 골짜기의 반석이 끊어져 높은 것은 폭포가 되고, 움푹 파여 깊은 것은 연못이 되어 있었다. 유독 아홉 번째 폭포가 더욱 장관이었으니, 만 길 층층 벼랑에 긴 시내가 거꾸로 걸려 있는 형세가 완연히 허공에 펼쳐진 비단 폭이나 땅에 처박힌 은하수 같았다. 마른 우레가 계곡을 울리고 흰 눈이 허공에 가득했으니 소위 ‘천 길

물결이 날아 옥가루를 뿜고, 큰 웅덩이의 메아리는 맑은 바람 소리 같다’
라는 것이었다.⁹⁾

위의 기록은 아홉 개의 폭포가 이어진 외금강의 절경, 구룡연에 이르는 여정을 박진감 넘치게 기술하고 구룡연의 경관을 핏진하게 묘사한 뛰어난 문학작품으로 읽힌다. 이렇게 법종은 금강산 곳곳의 승경을 생동감 넘치는 문장으로 전했을 뿐 아니라 경전은 물론 사서(史書), 시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장을 인용하며 박람강기(博覽強記)를 드러냈다. 법종의 「유금강록」의 문장은 18세기 산수유람을 소재로 한 문예의 전성기에 불가(佛家)를 대표하는 유람록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법종은 금강산을 벗어난 귀로의 행로를 상세히 밝히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유람록을 마무리하였다.

사서에 “삼신산이 동해에 있다.” 하였는데, 이 산이 곧 삼산 중 하나이니 소위 제일 봉래산이다. 이 산은 진나라 시황제와 한나라 무제가 평생을 보고 싶어 하고도 보지 못한 곳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루아침에 찾아와 보았고, 깊신을 신고 대지팡이 짚고서 오르지 않은 산이 없고 건너지 않은 물이 없다. 즉 소위 붉은 절벽과 하얀 바위와 은빛 폭포와 옥 같은 샘과 더불어 저 금모래 세계와 옥 같은 골짜기의 안개와 노을이 뺨뺨하게 늘 눈앞에 펼쳐질 것이며, 비록 속세의 먼지 구덩이로 다시 떨어진다 해도 지팡이와 나막신과 납의에는 푸른 비춧빛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리니, 속세의 인과가 아니라면 이 몸이 이 땅을 어찌 밟을 수 있었겠는가. 내가 이를 다행으로 여겨 지나며 본 것들을 대강이나마 기록하였다. 그 나머지 사적들은 모두 산사(山史)에 기록되어 있으니, 굳이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개 이 명산의 대찰들은 삼한의 군왕들이 운은(綸恩)의 이슬을 내리시고 노비와 땅을 하사하여 삼보를 융성하게 한 것이었다. 때때로 내향(內香)을 내리고 누차 법석을 빛내셨으며 어명이

9) 법종 2015, 419-420.

담긴 금패가 지금도 당당하니, 그 존숭이 끊이지 않았음을 대략 알 수 있다. 아, 이 산의 기이하고 빼어난 모습은 천하의 선구(仙區) 중에서 제일이고, 융성한 불찰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제일이다. 저 신주 사람들마저 이 산 아래 살기를 소원하게 하였으니 천하제일명산이라는 칭호가 어찌 과장이겠으며, 참으로 ‘천하의 명산은 대부분 승려들이 점유하였다’라고 하겠으니 융성하고도 아름답도다.

그러나 그 옛날 선재동자가 남쪽을 유행하고, 진량(陳良)이 북쪽을 노닌 것은, 꼭 얻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길을 나선 것이었다. 지금 우리는 자장(子長)이 유람했던 것처럼 산수의 풍경을 즐기기에 힘쓰고 우리 문중의 행각사(行脚事)는 망각하였으니, 이는 옛 성현들에게 크게 부끄러운 것이다. 차라리 옛날 기거하던 산으로 돌아가 그윽한 곳에 칩거하면서 새가 어깨에 등지를 틀고 잣나무가 팔꿈치에서 자랄 때까지 문지방을 나서지 않는 것만 못하리라. 그래서 돌아간다.¹⁰⁾

법종은 ‘이 산의 기이하고 빼어난 모습은 천하의 선구(仙區) 중에서 제일이고, 융성한 불찰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제일’이라 하였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사찰의 융성함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사찰의 융성함은 왕실의 지원에 힘입어 존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또한 본인의 유람이 풍경을 즐기기만 하고 문중의 행각사를 망각하였다고 하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칩거하고 수행할 것이라며 끝을 맺었다.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산수 유람과 승려의 수행을 대비한 인식이 드러난다. 이것은 본인의 유람에 대한 겸사(謙辭)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환의 유람경로 살펴보자. 세환은 1883년 8월 보름 예천 용문사에서 학도(學徒)와 함께 스승을 모시고 금강산으로 향했다. 이때 세환의 스승은 극암이며 학도는 사제 혼경 등을 말한다. 세환은 스승의 명으로 금강산 행로를 기록한다고 밝혔다. 세환의 기록은 유람의 일정, 감상을 산문으로 기술하고, 명소를 유람한 소회를 시로 밝혔다. 금강록은 산문 사이에 시를 함께 기록

10) 앞의 책, 430-431.

했다. 본인의 시 47수, 작자가 다른 시 8수, 상량문 2부 등을 덧붙였다.

세환의 기록이 법종과 다른 점은 금강산으로 들어가기 전 행로를 자세히 밝힌 것이다. 세환 일행은 예천 용문사에서 단양을 거쳐 평창으로 이동했으며 오대산으로 들어가 월정사, 상원암을 참배하고 낙산사를 거쳐 건봉사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예천 용문사에서 금강산까지 원거리를 이동하면서 도중의 사찰을 거점으로 삼았지만 주막과 시장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이다. 열무실점포, 지경점, 진두점, 대화시장, 공수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막의 등장은 18세기 후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여행문화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주막은 간선로의 중요 지점에 위치하여 여행자의 숙식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화폐로 값을 치러야 했다. 주막(酒幕), 주점(酒店), 여점(旅店), 여막(旅幕), 야점(夜站) 등으로 불린 상업적 숙박시설이 조선 후기 여객의 팽창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였다.¹¹⁾ 세환이 금강산을 여행한 기록에는 화폐의 사용, 주점의 이용과 같은 여행 환경상의 변화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세환은 삼일포에서 금강산으로 들어와 유점사 연기 설화에서 53불이 이동한 경로, 즉 구령, 노춘정, 장항령, 환희령을 거쳐 8월 28일 유점사로 들어갔다. 예천에서 출발한 지 13일 만이었다. 유점사는 바로 전해인 1882년 화재를 입어 많은 전각이 불타 없어진 상태였다. 이후 유점사 위의 학소대, 십이폭포의 절경을 감상한 뒤 안문령을 거쳐 내금강 마하연으로 넘어갔다. 법종도 외금강에서 내금강으로 넘어갈 때 이 고개를 이용한 바 있었다. 세환은 마하연을 거쳐 만회암, 불지암을 돌아보고 비로봉까지 올랐다. 이후 만폭동을 거쳐 표훈사 일대와 망군대를 유람하고 장안사, 영원암을 돌아본 뒤 중내원과 미륵봉을 넘어가 다시 유점사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또 다시 해금강과 삼일포를 유람하고 신계사와 옥류동, 구룡연을 거쳐 만물초까지 이르렀다. 이어 통천의 총석정으로 갔다.

11) 최영준 1990, 303-421.

금강산의 남쪽으로 진입하여 외금강 일부를 유람하고 내금강으로 넘어가 명승을 모두 탐승한 뒤 다시 해금강과 외금강의 동북쪽을 유람하고 총석정에 이른 것이었다. 여기서 석왕사와 원산 방향으로 유람을 이어 갈 스승과 방향을 달리하여 귀로에 오르게 되었는데 세환은 고성으로 내려와 유점사 53불 전설의 유적인 해금강 선주암, 현종암을 둘러보고 이후 남하하여 조제암에 머문 것으로 유람록을 마무리하였다. 유점사 53불 전설 속에 등장하는 길을 금강산 유람 앞뒤에 배치하여 수미상관(首尾相關)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여행기간은 한 달이 훨씬 넘었다. 음력 8월 보름에 예천에서 출발하였는데 총석정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9월 중순을 넘기고 추위를 호소할 정도였다. 세환은 당기 힘들다는 비로봉과 만물상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 법종은 미처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다. 세환의 유람경로는 전통적인 내외금강산, 해금강의 명소를 모두 거친 것이며 18세기 후반 이후 유람객의 발길이 닿기 시작한 만물초까지 유람하였다.

다음 날 40리 떨어진 만물초에 이르러 자생동을 지나 금강문에 도착하였다. 좌우에 쪽 늘어선 높은 산들이 억만 길이나 솟아올라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는데, 삐죽삐죽 우뚝우뚝 솟은 모습이 마치 칼과 창을 세워서 나열해 놓은 듯하였고, 기이하고도 괴이한 모양들이 온갖 사물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깎아지른 듯이 험한 바위와 겹겹이 쌓여 있는 높은 절벽엔 신녀가 머리를 감았다는 세두분 세 구멍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금강 제일관’이 있었다.¹²⁾

어렵게 만물상을 닿은 세환은 온갖 사물의 모습을 한 기이한 암석 봉우리들을 목격했다. 이렇게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유람객의 발길이 닿기 시작한 만물상에 대한 유람이 19세기 일반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환의 기록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유람과정에서 유불 교유가 이루어지

12) 세환 2020, 150-151.

고 있다는 점이다. 세환은 통천의 지방관 이보인(李輔仁)과 고성(靑石)의 지방관 하석(霞石)을 찾아가 숙식을 청하고 교유를 맺었다. 지방관들은 시를 주고받으며 흔쾌히 방외(方外)의 교유에 응했는데 이것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환의 학식과 명망이 상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한편, 법종과 세환의 기록 속에 나타난 금강산 사찰의 수는 어떠했을까.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금강산의 32개 사찰과 암자가 기록되었고, 16-17세기 유람기록에는 사찰이 10개, 암자가 108개나 기록되었다고 알려졌다.¹³⁾ 18세기 유람록에도 사암이 125개나 기록되었고¹⁴⁾ 관찬 지리지와 조선 후기 유람록의 기록을 종합하여 160개의 사찰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한다.¹⁵⁾ 금강산내에서는 조선 후기까지 사찰의 증진이 이어졌고 창건의 경우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 초 금강산을 유람한 법종은 유람록에 62개의 사암을 언급하였다. 이 사암들의 분포는 내금강 유역에 보다 집중되어 있었다. 법종 자신은 ‘오르지 않은 산이 없고 건너지 않은 물이 없다’고 자신하였지만, 실상은 만물상과 해금강을 유람하지 않았다. 19세기 후반 세환은 금강산의 훨씬 넓은 구역을 유람하였다. 남부의 건봉사 지역과 해금강, 북부의 만물상 지역까지 발길이 닿았다. 하지만 세환의 유람록에 언급된 금강산 사암은 36개소에 불과했다. 세환은 폐사나 무거주 사암에 대해 특별히 기록하지 않았고, 금강산 불교세의 쇠락을 암시하는 문장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더 넓은 지역을 유람했음에도 언급된 사찰 수가 적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7세기 중반이후 산수 유람이 성행하면서 금강산의 많은 승려들이 지로승(指路僧)이나 남여승(藍輿僧)으로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까지 100개가 넘는 사암수가 기록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족 유람객으로 인해 사찰과 승려의 피해가 심화되고, 18세기 중반 균역법 시행이후 승도의 역 부담이 증대

13) 이종수 2017, 236-237.

14) 고영섭 2010, 320-321.

15) 최윤정 2008, 25-34.

<표 3> 법종과 세환의 유람기록에 나타난 금강산 사찰과 암자

	허정 법종(1711)	혼원 세환(1883)
금강산내 사찰·암자	신계사, 발연암, 폭포암, 원통암, 송림암, 불정암, (상견성암, 하견성암, 영대암, 영은암, 축수암), 유점사, 선정암, 명적암, 백련사, (홍성암, 두운암, 성불암), 대적암, (향로암), 중내원, 초암, 묘길상암, 불지암, 계빈암, 마하연, 만회암, 선암, 수미암, 진불암, 내원통, (능인암), 보덕굴, 은적암, 표훈사, 기구암, 삼장암, 정양사, 청련암, 신림암, 돈도암, 보회암, 백화암, 운지암, 안양암, 삼일암, 미아암, 석가사엿터, 송라암, 대송라암터, 현불암, 영원암, 삼불암, 장안사, 극락암, 상관음암, 중관음암, 하관음암, 장경암, 금장암, 은장암, 사근암	건봉사, 낙서암, 보림암, 봉암, 몽천암, 유점사 , 반야암, 마하연 , 만회암 , 불지암 , 보덕암 , 표훈사 , 원통암 , 선암 , 사천왕암, 천덕암, 지덕암, 수미암 , 정양사 , 백화암 , 돈도암 , 송라암 , 안양암 , 장안사 , 장경암 , 지장암, 해은암, 영원암 , 도솔암, 중내원 , 신계사 , 화장암, 보광암, 보운암, 선주암, 조계암
사암수	62	36

<표 4> 법종과 세환 유람기록에 나타난 폐사지와 무거주 사암

	허정 법종(1711)	혼원 세환(1883)
폐사지	원적암, 계조암, 적멸암, 도솔암, 백전암, 불정암, 묘길상암, 석가사터, 대송라암터	
무거주 암자	선암, 진불암	수미암, 송라암, 중내원

하면서 19세기 출가자 감소와 불교세의 쇠락이 가속되었다는 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⁶⁾ 19세기 이후 나라 정세의 불안과 과중한 승역 부담으로 인해 금강산 승려들도 그 수가 줄고 폐사의 경우가 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¹⁷⁾ 세환이 기록한 금강산이 36개 사찰은 19세기 후반 금강산 사찰의 수를 거의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¹⁸⁾ 1942년의 『유점사본말사지』에 37개 사찰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20세기 전반까지 그 수가 대체로 유지되었다 할 수 있다.

한편, 법종이 금강산에서 만난 승려들에 대한 묘사 중 인상적인 기술은 <표 5>

16) 손성필 2018, 189-190.

17) 19세기 금강산 남여역의 과도한 부담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남여역으로 유람객을 싣고 진주담으로 몸을 던진 가마꾼 승려 전설이다. 이경순 2013a, 386.

18) 이면신의 『봉래일기』에 기록된 사찰은 31개 정도이다.

〈표 5〉 법종과 세환이 금강산에서 마주친 승려

허정 법종(1711)		혼원 세환(1883)	
폭포암	설봉대사가 두세 명과 공에 대해 이야기함	반야암	응답사형이 머무는 암자인데 출타하여 돌아오지 않았음
원통암	혜월스님의 만류로 그곳에 묵음	정양사	서월장로가 주변 경관을 설명
백련사	옥혜스님이 문도 수십명과 나무아미타불을 염송	영월암	스님 한분이 계셨는데 마치 신선 세계의 사람 같았다. 10년전에 공부를 함께 했던 벗이었다.
수미암	사문 한분이 가사를 입고 입을 벽에다 걸고서 좌선하고 있었음	안양암	남화장로가 감자떡을 한사발 나눠줌
은적암	호승 두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푸른 눈에 털이 하얗고 종이로 만든 주머니에 솔잎을 담고서 절립을 배우고 있었음	보광암	진하스님(영남에서 함께 공부)을 만나 함께 유람

와 같다. 법종은 금강산에서 승려들이 공에 대한 담론을 벌이는 장면, 단체로 이루어지는 염불 수행, 좌선에 몰두한 모습 등을 기록하였다. 강학과 선 수행, 염불 수행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던 금강산의 불교신행을 확인할 수 있다. 세환은 금강산에서 마주친 승려들 중 상당수가 함께 공부했던 이들이라고 밝혔다. 영남지방에서 알게 된 승려들이 금강산에서 수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18세기 이후 수행과 강학의 중심이 삼남지역으로 이동하였지만 금강산은 여전히 명성을 유지하며 많은 승려들이 수행처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III. 유람록에 나타난 금강산 공간 인식

금강산은 고대로부터 사찰이 자리 잡았지만 12세기 이후 범기보살이 주처하는 산이라는 신앙이 정착되면서 불교성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금강산 사찰들은 고려 말 원 황실의 원찰이 되었으며 원 황실로부터 강향사(降香使)가 파견되었다.¹⁹⁾ 태조 왕건에게 담무갈보살이 현신했고 그 자리에 정양사를

19) 원 영종과 태후, 태자의 시주로 표훈사가 중창되고 순제때는 향로 등이 하사되고 각종 법회가 열

창건했다는 연기 설화도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금강산의 여러 이름 중 불교적 의미를 담은 ‘금강’은 14세기 이래 보편화되었다. 금강산 주요 사찰은 조선시대에도 건재하였는데 유점사, 표훈사, 장안사, 건봉사, 신계사, 정양사가 왕실의 원당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지원은 조선후기까지 이어져 왕실 내탕금으로 사찰 중수가 이루어졌다.

또한 고려 말 지공(指空)이 금강산을 순력한 바 있으며 정양사에 나옹혜근(懶翁惠勤)이 주석했다. 또한 조선불교의 중흥조라 할 수 있는 청허가 백화암, 돈도암 등에 머물렀고 보덕암, 유점사 등에 송운유정(松雲惟政)의 자취가 남아 있었다. 이후 청허의 법통을 이은 편양언기, 기암법견, 풍담의심, 월지도안, 송월응상, 환성지안 등의 승려들이 금강산 사찰에 주석하여 활동하였다.²⁰⁾ 이에 따라 금강산에는 고대로부터의 조선시대까지의 불교 전승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법종과 세환의 기록이 갖는 특징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금강산의 자연과 유적, 사찰의 연혁을 인식하고 기술하는 방식이다. 금강산의 불교적 전통과 전승에 대해 금강산 유람에 나선 유학자들은 다양한 태도를 보였는데 대부분은 비판적 입장에 있었다. 이러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조선 후기 금강산 유람록의 제목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에 기록된 금강산 유람록의 제목에 ‘금강’이 포함된 것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금강’을 대신하여 ‘풍악(楓嶽)’, ‘관동(關東)’, ‘동유(東遊)’가 채택된 것이다. 그만큼 불경에서 유래한 ‘금강’이란 이름에 대한 거부를 나타낸 것이다.²¹⁾ 대다수의 유학자들은 금강산의 압도적 자연경관에 감탄하고 완상의 대상, 문예의 소재로 삼거나 도학적 관점에서 경물을 해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승려들이 들려주는 사찰의 연원과 지명의 유래 등에 대해서는 황탄한 설로 일축해 버렸다.

금강산에서 불교전승의 비판이 가장 첨예하게 있었던 것은 바로 유점사 53

렸다. 장안사는 기황후가 순제와 황태자를 위해 대규모로 중창했다. 강호선 2019, 43-47.

20) 최윤정 2008, 53-74.

21) 이경순 2013b, 164-165.

불의 전설이다. 유점사 연기 설화는 고려말 민지(閔漬, 1248-1326)가 지은 「금강산유점사사적기(金剛山楡岾寺事蹟記)」에 기록되었는데, 유점사 창건 이력으로서 유점사에 봉안된 53구의 부처와 유점사에 이르는 지명들의 유래가 기술되었다. 천축국에서 문수보살에 의해 주조된 53개의 불상이 종(鐘)안에 봉안된 채, 월지국을 거쳐 금강산에 도달하여 유점사가 창건되었다는 내용이다.

법희거사(法喜居士)는 기록하기를, “53불은 월지국에서 철로 만든 종(鐘)에 실려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였는데, 법희거사는 고려의 문사 민지(閔漬)이다. 그가 기록한 이곳 사찰의 전말은 대부분 허망하여 믿을 가치가 없으나, 이 절은 내금강과 외금강에서 가장 웅장하다. 불전 이외에 중들의 요사, 선실, 누랑, 부엌간 등이 둘러서 있는데, 그 칸수에 관해서는 자세히 기록할 수가 없다. 이곳에 사는 중의 수효는 천 명을 헤아릴 정도이고 모두 물자가 충분하였으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金昌協, 「東遊記」(1671) 『農巖集』 권23

이 말이 매우 괴이하고 허탄하여 입에 올릴 만한 것은 못되나, 유점사라는 칭호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곧바로 고성으로 향하는 길에 유점·니대·구점·장항령·환희령·현종암이 있었으니, 이들 또한 모두 여기에서 연유하여 이름한 것이다. … 오탁정은 향로전의 서북쪽 섬돌 아래에 있다. 고적에 이르기를, “이 지역에는 원래 샘이 없었는데, 어느 날 까마귀 떼가 날아와 부리로 땅을 쪼아대자 갑자기 샘물이 흘러 넘쳤으니, 그 우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 또한 참으로 괴이하다. 李宜顯, 「遊金剛山記」(1709) 『陶谷集』 권25

위의 글은 17세기 후반 문단을 이끌던 김창협(金昌協)의 기록이고 아래는 법종보다 2년 앞서 금강산을 유람한 이의현(李義顯)의 기록이다. 이들은 금강산의 최대 사찰로서 유점사의 위용에 대해서 감탄하면서도 불교전승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판을 했다. 고려 말 민지가 남긴 유점사 53불의 유래와 전설에 대해 모두 허망하여 믿을 가치가 없다거나 괴이하고 허탄하다고 하였다.²²⁾

이렇게 불가의 전승을 황탄한 설로 보면서 혹세무민이라 비판한 것은 불교를 유학보다 열등한 사상체계라고 여길 근거로 삼기 위함이었다. 유학자들은 불가의 전승을 설명하는 승려들을 ‘대화를 나눌 만하지 못한’ 존재로 여겼다. 그들은 ‘쇠로 만든 불상이 어떻게 물에 뜨며 혼자 움직일 수 있냐’는 식의 상식이나 연대고증을 통해 불교전승이 비합리적이라 비판했다. 당시까지 산 공간에 유지되고 있던 불교 전승의 유통을 막고 지적인 위계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²³⁾

법종과 세환은 금강산의 사찰과 지명 유래를 자세히 소개하고 깊은 감명을 표현하였다. 그 중 유점사에 대한 소개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였다.

큰 총림이 있었으니 유점사였다. 층층 누각이 높고 높으며 기다란 행랑이 구불구불 이어지고, 동쪽 마당에는 청석탑이 세워져 있고 서쪽 마당에는 백석탑이 세워져 있으며, 뒤뜰에는 오탁정이 있고 앞 시내에는 산영루가 있었다. 그 누각 처마에는 시판들이 줄줄이 걸려 있는데, 모두 이름난 작가의 작품이었다. 그 시들을 반복해 읽어 보니 정취와 풍경이 완연한 것이 참으로 절창이었다. 구경을 마치고 다시 법당으로 들어가자 탁자 위에 천태산 53금상이 가설되어 있었는데, 굽이굽이 사이에 세워진 것이 그 기교가 지극하였다. 어떤 스님이 그 유래에 대해 말해 주었다. … 그리고 더불어 관세음보살의 친필과 패엽의 범서와 지공 화상의 친필이 보관된 금함, 유리병, 호박잔 등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모두 사명 대사께서 법을 전하며 표식으로 삼았던 물건이다.²⁴⁾

임오년(1882) 그해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동자가 잘못하여 불을 내는

22) 이러한 유학자들의 이러한 비판은 15세기 말 남효온 이래 일관된 반응이었다. 남효온은 쇠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상식, 유점사기에 나오는 연대에 대한 고증, 불교의 한반도 유입시기, 비구니 승단의 출현 시기, 梵語 해독문제 등을 근거로 합리적 사고에 의한 비판을 가하였다. 남효온은 ‘노춘’이란 이름도 후세에 지은 것 같고 신라 말의 元曉, 義相, 律師의 무리들이 이 산의 사적을 과장하고자 추후에 써놓은 것 같다는 추론까지 덧붙였다. 조선 후기 유림자들은 15세기의 남효온의 설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23) 이경순 2013b, 173-174.

24) 법종 2015, 415-416.

바람에, 범우와 요사채가 일시에 모조리 타 버려서, 마치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던 이전 시대와 같이 황량하게 변하였다. …그러나 겁화를 한 번 겪을 때마다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었으니, 그 노고를 위로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대답하길 “본사의 53불께서 각각 하나의 불을 관장하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화재를 겪게 하는가 봅니다. 지금까지 50여 차례의 화재가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 그리고 사찰의 진귀한 물건으로 진주방석이 있으니, 다섯 빛깔의 구슬이 꿰여 있고, 방석에는 수를 놓아서 글자를 새겨 넣었는데, 바로 ‘개원연사(開元蓮寺)’라는 글자이다. … 오동향로와 뒷개는 모두 용의 형상이었는데, 그곳에 향을 피우면 입과 코 등의 모든 구멍에서 연기가 나왔다. 향로의 다리도 또한 용의 다리를 본떠서 만들었으니…패엽서의 잎 색깔은 검푸른 색(翠黑)이고, 그 크기는 손바닥만 하였으며, 글씨는 관음보살이 직접 쓴 것이다. 앵무잔과 진옥배는 모두 다기로서 53부처님께서 오실 적에 함께 온 물건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소중히 잘 보관되어 있다.

…그 사이에 흥망성쇠가 마치 봄날에 제비가 찾아오듯 연이어 계속되었으나, 나라의 은혜를 특별히 입어서 쇠퇴할 때마다 새롭게 일어났다. 지금도 왕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또한 고을로부터 정성스런 보호와 지원을 지극히 받아서, 거의 다시 새롭게 일어났으니 이에 사찰의 웅장함과 부처님의 영험함이 이와 같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지금 큰 화재를 당한 나머지 전루(殿樓)와 요사채 건립 작업이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²⁵⁾

유점사에 대한 소개는 두 기록 모두 고려 말 민지의 「금강산유점사사적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유점사의 역사를 각자의 방식으로 생동감 있게 전하였다. 세환은 53불이 유점사가 여러 번의 화재와 중건을 거듭하면서도 유지될 수 있게 한 영험의 근거라고 보았다. 흥미로운 것은 172년의 격차가 있는 두 유람록에서 공통적으로 유점사 승려들이 민지의 사적기에 기초해 유점사의 유래를 설명하고 절에 보관된 보물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순서로 손님들을 응

25) 세환 2020, 108-112.

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설명의 세부는 미묘하게 달랐다. 법종은 민지의 사적기의 내용을 축약해서 기술했고 세환은 훨씬 자세히 기록하였다. 또한 열거한 유점사의 보물들의 품목이 조금 차이가 있다. 법종은 지공의 친필을 언급하고 유리병, 호박잔과 같은 보물들이 사명대사가 법을 전한 표식이라고 한 반면, 세환은 진주방석과 오동향로 등 새로운 품목을 들었고 앵무잔과 진옥배는 53부처님이 오실 때 함께 온 보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점사와 더불어 삼불암 전설을 큰 비중을 두어 기술하였다.

그 남쪽에 우뚝 선 돌에는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매우 아름다운 세 분은 나옹 선사가 조각한 것이고, 그 배면에 조각된 예순두 분은 나옹 선사와 수승함을 여겼던 김동(金洞)이 새긴 것이라 한다. …개경의 지공 화상께서 이 산에 들어와 김동을 외도로 여겼는데, 김동이 승복하지 않자 지공 화상이 맹세하였다. “그대가 옳고 내가 틀렸다면 오늘 내가 하늘의 재앙을 받을 것이며, 내가 옳고 그대가 틀렸다면 오늘 그대가 하늘의 재앙을 받으리라.”… 그날 밤 과연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쳤다. 김동이 지은 절은 물과 바위에 격파되어 김동과 함께 절의 불상과 절의 스님 등이 일시에 명연으로 함몰되었다고 한다. …아래로 내려가 명연을 살펴보니 김동과 고금의 나그네들이 그 속에 많이 빠져 죽어서인지 물빛이 매우 나빠 아득하고 침침했으며 세차게 용솟음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 감아 돌며 소용돌이치는 기세가 사나운 용이 펄쩍펄쩍 뛰는 것 같고, 목메어 울부짖는 것이 온갖 귀신들이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들 흘려보기만 하고 다가가질 않았다.²⁶⁾

앞에는 삼불암이 있었는데, 바위 표면에 세 분의 부처님을 크게 새겨 놓은 것으로, 나옹 화상이 조성한 것이다. 뒤에 있는 53불은 김동 거사가 조성한 것이다. 한쪽 면에는 김동 거사의 원불이 있는데, 이를 조성할 때 거사가 나옹 화상의 도가 큰 것을 시기하여서, 돼지로 변하여서 땅을 파서 바위를 넘어트리려고 하였다. 바위가 쓰러지려고 할 때 갑자기 돌로 된

26) 법종 2015, 426.

매가 하늘에서 날아와 돼지를 낚아채서 5리쯤 떨어진 명연에 빠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못 옆에 시체 바위가 있고, 그 아래에는 상을 치르는 듯한 모양을 한 세 개의 바위가 있는데, 땅에 엎드려 구슬피 우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때 돌 매가 지금의 석응봉이다.²⁷⁾

삼불암 전설에 대해 법종과 세환은 전설과 관련된 지명들을 소개하며 마치 설화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움을 보여준다. 또한 법종은 김동거사에 대해 벌을 주는 주체를 지공화상이라고 언급하고 천둥과 비바람으로 김동을 명연에 빠뜨렸다고 한 반면, 세환은 매가 돼지로 변한 김동을 낚아채 명연에 빠뜨려 죽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은 금강산 설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됨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이다. 많은 유학자들이 허탄하다고 무시했던 유점사 53불과 삼불암 전설에 대해 법종과 세환은 정성 들여 기록하였다. 이러한 전설들은 인도로부터 한반도에 전해진 불교의 역사를 반영하고, 외도를 압도한 금강산 불교의 위세를 시공을 초월한 환상적 설화로 압축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불가의 전승은 그 안에 내포된 상징성이나 세계관을 통해 풍부한 사실과 문화를 생성시킬 수 있는 내러티브였다.

이 밖에도 법종은 각 불적 모습을 그 유래와 의미에 공감하며 설명하였다.

만회암에 올랐다. 산속 오두막은 그윽하고 고요하며 바위와 계곡이 아름다웠으며, 숲에는 염불하는 새가 날아다니고 벽에는 경전을 실은 말이 그려져 있었다. 금빛 푸른빛 단청이 휘황찬란해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을 정도로 가슴속이 시원해지고 온갖 근심이 모두 사라졌다.²⁸⁾

작은 바위굴을 통과하자 대선찰이 나타났다. 그 이름은 표훈사로 곧 의상 법사의 고족제자인 표훈스님께서 옛날에 기거하셨던 곳이다. 전각이 층층이고 행랑과 방사도 첩첩이며, 세존의 신령스런 형상이 가득하고 시

27) 세환 2020, 131-132.

28) 법종 2015, 420.

왕(十王)의 위엄스런 모습도 삼엄한 것이 참으로 영취산의 기원정사 같았다.²⁹⁾

그 아래에 불정암이 있는데, 불정조사께서 처음 만든 곳이나 옛날에 화재를 입었다. 눈을 비비고 멀리 바라보자 옥 죽순처럼 기이한 바위가 꼭 흰 납의를 입은 승려가 정진하는 모습 같았으니 소위 성문봉이었고, 그 계곡은 성문백천동이었다.³⁰⁾

옆에는 삼불암과 옥초대가 있고, 그 위로 흰 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꼭 열후들이 천자를 조회하면서 홀을 받들고 옥을 바치는 형상처럼 보이는 형상이 있었으니 시왕봉이었고, 그 계곡이 시왕백천동이었다. … 동부(洞府)가 깊고 깊으며 층층 절벽이 사방을 에워싸고 온갖 잡목이 우거져 올려다보아도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저승에 들어온 것 같았으니, 이곳이 소위 지옥동(地獄洞)이었다. 금쇄굴을 지나 문이 있으니 지옥문이요, 문 앞에 개울이 있으니 황천강이며, 강 위에 있는 바위는 업경대요, 업경대 너머에 지장봉이 있고, 지장봉 너머에 지장암이 있으며, 지장암 앞에 사람 1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석대가 있었으니, 소위 시왕대였다.³¹⁾

법종은 만회암을 영취산의 기원정사로, 불정암 주변을 성문의 세계로, 삼불암과 업경대 주변을 시왕들의 세계로 묘사했다. 또한 유적을 개별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불전에서 유래한 의미를 담은 더 넓은 공간 안에서 파악하였음을 주목할 수 있다. 시왕봉, 지옥동, 지옥문, 황천강, 업경대라는, 명부(冥府)를 표현한 연쇄적 지명들은 일정 구역 내에 위치한 지형지물에 대해 통일적 의미를 부여한 예이다. 금강산의 불적과 자연을 불교의 전승과 함께 서술하고 불국토로 상상한 것은 세환의 기술에서도 드러난다.

29) 앞의 책, 424.

30) 앞의 책, 415.

31) 앞의 책, 429-430.

만회암이 있었는데, 그 암자의 이름은 바로 ‘온갖 번뇌들이 마치 재처럼 차갑게 식어 없어진다’는 뜻이다. 암자 뒤에는 관음봉이 있고 앞에는 동자석이 있었으며, 오른쪽에는 용왕봉이 있고, 중앙에는 배석대가 있었다. 옛날 고려 세조가 금강산에 행차하였을 때 법기보살이 중향성에서 완전무결한 몸으로 나타나자, 임금이 단발령에서 공경하는 마음에 우려보며 한 걸음마다 한 번 절을 하였다고 한다.³²⁾

선암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바로 박빈(朴彬)거사가 마음을 닦아 득도한 곳이다. 거사가 10년 동안 도를 닦던 중에 어느 날 용선(龍船)이 홀연히 암자 앞에 나타나서,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³³⁾

신만물초 안에는 천불동이 있었는데, 이곳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옛날에 한 도사가 뛰어난 경치를 유람하며 다니다가 한 장소를 찾아들어 갔는데, … 별천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 주위의 둘레는 십 몇 리에 이르렀고, 사방은 병풍을 친 듯 빙 둘러 막혀 있었으며, 금은·칠보가 갖가지로 장식되어 있었다. 금모래가 땅에 깔려 있었는데 산뜻하고 맑은 물이 그 가운데 가득 차 넘쳐흘렀으며…현세의 천불이 옥구슬 장식을 화려하게 늘어뜨려 장엄하고서 차례대로 줄지어 앉아 있었다. 각기 밝은 빛을 뿜어내어서 환하게 비추어 어두운 곳이 없었으며, 항상 설법을 하고 계셔서 오묘한 법음이 멀리까지 퍼졌으니, 그야말로 부처님의 극락세계였다.³⁴⁾

위의 예들은 두 승려가 금강산 불적의 유래를 설명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금강산 곳곳에는 수많은 불적이 있었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남아있었다. 두 승려는 방문한 거의 모든 불적의 유래와 전설을 기록했다. 또한 그러한 공간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을 느끼고 극락세계로 인식했다.

한편, 세환은 해금강에서 남하하여 귀로에 조제암에서 하룻밤 머물렀는데

32) 세환 2020, 118.

33) 앞의 책, 125.

34) 앞의 책, 151-152.

여기에서 기월(機越)이라는 승려를 만났다.

기월스님이 있었는데, 말을 흥미진진하고 맛깔나게 잘하였으니,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묘하였다. 주제를 금강산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 말하길 “금강산은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으니, 신계사 일대는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고, 만폭동으로부터 안문령에 이르는 앞의 중향성 일대는 보살이 항상 머물며 설법하는 곳이며, 영원암은 시왕이 머무는 곳이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의원통암은 바로 성문이 머무는 곳이다. 석굴에 암자를 지어 놓았고 12층 폭포가 있다.”라고 하였다.³⁵⁾

세환이 전하는 기월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진진하다. 금강산을 네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표 6〉 조제암 기월의 금강산 공간

신계사 일대 세존의 공간	중향성 일대 보살의 공간
영원암 구역 시왕의 공간	의원통암 구역 성문의 공간

이러한 기술은 금강산을 불교적 공간으로 구분하고 각각 세존, 보살, 성문, 시왕의 영역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금강산 전체를 불세계가 표현된 공간으로 해석했던 조선 후기 승려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한편, 금강산에는 범종과 세환이 법통을 계승한 청허선사의 자취가 남아있었다. 바로 백화암에 자리한 부도와 영각이었다.

백화암에 이르렀다. 마당은 평탄하고 소나무 잣나무가 푸르디푸르렀으며 부도 탑이 높다랗고 옥돌에 새긴 비석은 웅장하였다. 절을 마치고 쉬어 보니, 곧 서산대사와 여러 종사들께서 남기신 자취였다. 그 방으로 들

35) 앞의 책, 163.

어가자 여러 조사들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는데, 엄숙하기가 여산(廬山)의 십팔영당(十八影堂) 같았다.³⁶⁾

아침에 내려가서 10리 떨어진 백화암에 이르렀다. 암자 뒤에는 청허화상비와 풍담화상비가 있었는데, 청허화상비의 비문은 월사(月沙) 이선생이 지은 것이다. 암자의 동쪽에는 수충각(酬忠閣)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섯 조사의 영각으로, 지공화상을 주로 삼았다.³⁷⁾

『유점사본말사지』에 따르면 백화암 부도밭에는 청허대사부도비(1632), 편양대사부도비(1645), 허백대사부도비(1662), 풍담대사부도비(1668) 등 청허와 그 법통을 이은 제자들의 부도가 세워져 있었다. 이러한 부도군은 자신들이 법통을 계승한 선사들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였다. 또한 법종과 세환의 기록에 따르면 조사들의 초상화를 모신 영당도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환이 목격한 영당은 1869년에 증건된 건물로 추정된다.³⁸⁾ 이 영당에는 삼화상(지공·나옹·무학)과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그리고 다섯 조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었던 것이다.³⁹⁾ 이 구역은 금강산에서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를 되새기고 선사들을 추송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두 승려에게 백화암 부도군과 영당은 조선 불교 전통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례의 장소였을 것이다.

두 승려의 기록에서는 당시까지 전해졌던 금강산 불적의 유래와 전설을 확인할 수 있다. 172년의 격차를 두고 기록된 이 유람록에는 시간이 흐른 뒤 그 이야기들의 변화도 발견된다. 또한 두 승려의 금강산 유람록에는 의상, 표훈, 지공, 나옹의 전설이 기록되었으며 자신들이 속한 편양문파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선사들의 자취가 표현되었다. 이렇게 금강산은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불교의 역사가 응축된 공간이라는 것을 두 승려의 기록을 통해 살필 수 있

36) 법종 2015, 425-426.

37) 세환 2010, 131-132.

38) 고종 6년(1869)에 玩星, 月河 양사가 영각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권상로 1990, 672.

39) 유점사 1977, 479-480.

다. 법종과 세환의 유람록은 금강산 공간에 뿌리내린 불교적 세계관의 전승을 승려의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의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허정 법종과 혼원 세환은 조선 후기 편양문파의 고승이었다. 산수 유람이 크게 유행하던 시기에 이 두 승려는 유람을 표방하고 금강산 곳곳을 순례하여 유려한 문장으로 기록을 남겼다. 19세기말의 세환은 금강산 유람지역의 확대에 따라 18세기 초의 법종보다 금강산의 훨씬 넓은 지역을 유람했다. 또한 세환은 경로 중에 화폐를 사용해야 하는 주막에서 머물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금강산 유람 양태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법종과 비교하여 세환이 언급한 사찰 수는 현격히 줄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 금강산 승려의 수가 줄고 폐사된 사찰이 늘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승려의 유람록은 금강산 유람의 확대와 유람의 다양한 주체들을 조명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당시 유학자들이 남긴 금강산 유람록과는 다른 시각에서 금강산 사찰과 지명에 얽힌 전승을 충실히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법종과 세환의 유람록은 승가의 관점에서 금강산의 불교전승을 어떻게 서술하고 인식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기록들은 앞으로 금강산의 불교유적들을 복원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으며 금강산 불교문화의 스토리텔링과 문화 콘텐츠화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법종과 세환은 금강산을 순례하면서 부처와 보살, 성문, 시왕이 주처하는 불세계임을, 역대 고승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공간임을 확신하고 기록을 남겼다. 따라서 이들의 유람은 단순한 산수 유람이 아니라 불세계에 대한 순례길이었다고 여겨진다. 조선 후기 사족층이 주도한 산수 유람을, 산 공간에서 이루어진 유불의 접촉, 공간 인식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적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법종과 세환의 유람록은 금강산 불교 전승의 유지와 변화 뿐 아니라 금강산 표상을 둘러싼 담론의 장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조선 후기 승려의 산문으로 기록된 유람록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서 시론적(試論的) 성격을 갖고 있다. 앞으로 허정 범종과 혼원 세환의 금강산 유람록은 개별 연구로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강산완상록」 등 불가의 기록으로 추정되는 기행가사도 함께 검토하여 승려들의 금강산 유람과 금강산 불교에 대해 본격적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REFERENCES

- BEOPIJONG (법종), SUNG, Jaehyun tr. (성재현 역). 2015. 『허정집』 [*A collection of HeoJeong's works*], Seoul: 동국대학교 출판부 (Dongguk University Press).
- SEHWAN (세환), YUN, Chanho tr. (윤찬호 역). 2020. 『훈원집』, [*A collection of HonWon's works*], Seoul: 동국대학교 출판부 (Dongguk University Press).
- KWON, Sang Ro (권상로). 1990. 『한국사찰전서』 [*The Collection of Korean Temples*], Seoul: 이화문화사 (EhwaMunhwasa).
- YUJEOM-SA (유점사). 1977. 『楡岾寺本末寺誌』 [*The Record of the Head and Branch temples of Yu-jeom-sa*], Seoul: 아세아문화사 (AsiaMunhwasa).
- CHOI, Young Jun (최영준). 1990. 『嶺南大路』 [*The Main Road in Region of Youngnam*], Seoul: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 CHOI, Yun Jung (최윤정). 2008. 「조선후기 금강산의 불교」 [*A Study of Diamond Mountain Buddhism in the Late Joseon Dynasty*],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MA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 KANG, Hosun (강호선). 2019. 「고려시대 강원지역 불교의 전개」 [*A Study on Buddhism of Gangwon Prefecture in Goryeo Period*], 『강원사학』 (*KangwonSahak*), vol. 32, 31-58.
- KO, Young-seop (고영섭). 2010. 「금강산의 불교신앙과 수행전통」 [*Buddhism Religion and Training Tradition of Geumgangsan:Focusing on Pyohunsa, Yujeomsa, Singyesa and Geonbongsa*], 『보조사상』 (*BOJO SASANG*), vol. 34, 305-353.
- LEE, Jongsu (이종수). 2017. 「16-17세기 유학자의 유람록으로 본 금강산 불교」 [*Mt. Kungang Buddhist through record of excursion written by confucian between 16th century and 17 century*], 『남명학연구』 (*The Study of Nammyung*), vol. 51, 229-259.
- LEE, Kyungsoon (이경순). 2013a. 「조선후기 사족의 산수유람기에 나타난 승려 동원과 불교 전승 비판」 [*Monks mobilization and criticism on Buddhist legends observed by Sajok's travel documents in the late Chosun period*], 『한국사상사학』 (*The*

- Study of Korean History of Thoughts*), vol. 45, 373-405.
- _____. 2013b. 「17-18세기 士族의 유람과 山水空間 인식」[Sajok's travel and Their perception of Nature in the 17-18 century Chosun Dynasty]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h.D.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 SON, Seong Pil (손성필). 2018. 「조선시대 불교정책의 실제: 승정체제, 사찰, 승도에 대한 정책의 성격과 변천」 [The Reality of State Policies on Buddhism during the Joseon Dynasty: With a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Objects of Policies] 『한국문화』 (*HangukMunhwa*), vol. 83, 171-196.
- YI, Meon Shin (이면신), YI, Daehyung, Sukhwan YI and Jungsu HA tr. (이대형·이석환·하정수 역). 2020. 『(갑오년의 금강산 유람) 봉래일기』 [*A Journal of Bongrae (Geumgang mountain) in 1894*], Kyenggi: 올리브그린 (Olive green).

A Study on Travel Essays of Mt. Geumgang by Monks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Kyungsoon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cords of travel to Mt. Geumgang by two monk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se are *Yugeumgangnok* (遊金剛錄) by Heojeong Beopjong (허정법종) (1670-1733) in the 18th century and *Geumgangnok* (金剛錄) by Honwon Sehwan (혼원세환) (1853-1889) in the 19th century.

These two monks were well-educated and literate enough for their literary works to be published. In their records, their identity as monks is revealed, and they recognized and described the space of Mt. Geumgang from a monk's perspectiv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our route, the appearance of the temple on Mt. Geumgang, and the monks' perceptions of the space of Mt. Geumgang. The significance of the travel essays of these two monks lies in the fact that they faithfully recorded the traditions related to the temple and place name of Mt. Geumgang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majority of Confucian scholars. Beopjong and Sehwan made records of their visits to Mt. Geumgang, convinced that the Buddha, Bodhisattva, Sravaka, and Ten Kings of Hell resided in the space of Mt. Geumgang. Therefore, their travel was not a journey for pleasure, but a pilgrimage to the world of Buddhism.

Thus, the travel essays of these two monk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showing their perceptions,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dimension of discourse surrounding the representation of Mt. Geumgang.

Keywords

Mt. Geumgang, travel to Mt. Geumgang, Beopjong, Schwan, Buddhist travel, Yugeumgangnok, Geumgangnok

2022년 11월 10일 투고

2022년 12월 11일 심사완료

2022년 12월 18일 게재확정